

# 수서지역 공공 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7
----------	----

2009년 7월 10일  
교육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청원인 : 김연정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8번지 동익APT802-503)외 3,984세대
- 나. 소개의원 :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 제4선거구, 건설위원회)
- 다. 접수일자 : 2009. 5. 29.
- 라. 회부일자 : 2009. 6. 15.
- 마. 상정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 6. 24 상정·의결)

## 2. 청원요지

- 수서택지개발지구(수서동 737번지 일대)는 전체 아파트의 61%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된 임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대부분 7~10평형의 초소형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의 초·중·고교생 자녀들은 가정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 인근 ‘개포도서관’과 ‘송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리가 멀고 좌석 확보가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서동 737번지(약3,600여평)는 20여 년 동안 학교 부지로 지정만 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신축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대체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지역주민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3. 청원소개의원 요지(소개의원 : 김현기 의원)

- 본 지역은 개발 당시 수서동 737번지의 약 3,000여 평을 학교 부지로 확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로 존치되어 토지이용 측면에서 지극히 효율성이 낮고 관리가 되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약 20여 년 동안 학교 부지로만 지정된 채 활용되지 못한 학교 용지가 학교 신축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대체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지역 주민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란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을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먼저 청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 청원을 제출한 수서택지개발지구는 90년대 초, 약 14,000 가구가 건립되어 현재 약 6만여 명의 주민과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소재한 임대주택 밀집으로, 대부분 초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자녀가 가정에서 공부할 공간이 부족함.

- 동 지구는 개발 당시 수서동 737번지의 약 3,600여 평을 학교부지로 구획하였으나, 학교신설이 필요 없게 되어 현재까지 나대지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 김연정 외 수서동 주민 3,984인이 약 20여 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학교 부지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 본 청원에 대한 강남구의 의견은

- 도서관 건립을 요청한 수서동 737번지 일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서관 건립을 요청한 부지가 서울시(SH공사) 소유이므로 도서관 건립 부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영구 임대해 준다면 수서주민의 숙원인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음.

#### ○ 본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 청원지역은 인근 수서동 및 일원본동에 초등 3개교(대모초, 왕복초, 수서초)와 중학교 2개교(대왕중, 수서중)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택지개발지역은 2013년까지 학생 수용 예측 면에서 초·중학생 모두 기존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며 일원동 및 수서동 지역의 학생들의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인근 개발예정지구 증가 학생은 기존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학교 설립 소요 및 미 개설용지 활용 계획은 없음.
- 청원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용지에 대하여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지역단위계획구역 내 도서관 건립 가능 여부는 서울시 및 강남구청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함.

○ 본 청원에 대한 문화예술과의 의견은

- 강남구에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등 13개소, 학교전자도서관 26개소, 마을문고 6개소가 있으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강남도서관의 면적이 1,558㎡(열람석 327석), 개포도서관 면적이 2,377㎡(열람석 625석)임.

그 외 구립도서관은 소규모 도서관으로 면적이 300~700㎡(열람석 71~171석) 규모로 구립도서관의 수는 많으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는 학교시설 외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며, 수서동 일대에는 도서관이 없으므로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본 청원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원을 제출한 지역인 강남구 수서동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을 원하는 부지가 서울시(SH공사) 소유의 학교 용지이므로 서울시가 이를 용도 변경하여 도서관 건립 부지를 제공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임.

○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책을 통해 도서관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되살린다”는 구호아래 “책 읽는 서울” 사업을 펼쳐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특별시대표도서관’의 건립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도서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책 읽는 서울” 사업은 책읽기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을 설립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청원한 수서동 주민들의 바람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청원인들의 요구와 같이 임대주택이 밀집한 수서동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되고, 나아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다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수서동 737번지를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하여야 하고, 학교부지중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일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주어야 할 것이며, 강남구는 학교용지 3,600평을 매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므로 서울시는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일부 부지만을 강남구에 매각할 경우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구립도서관의 연건평은 1000㎡이하 이므로 기존의 학교부지는 도서관 건립과 함께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울시(SH공사)가 해당 부지를 강남구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줄 수 없다면 현재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대표도서관」 분관을 수서동에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 도서관 정책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20년간 나대지 상태로 묶어둔 토지를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도서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본 청원을 제출한 수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5. 질의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참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청원채택 의견서

- 청원명: 수서지역 공공 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 관련기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SH공사, 강남구청 등
- 채택의견

- 20여 년 동안 학교 부지로 지정만 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수서동 737번지(약3,600여평)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달라는 본 청원에 대한 관련 기관과 부서들의 의견은 청원을 제출한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으므로 설립은 필요하나 건립부지가 서울시(SH공사) 소유의 학교 용지이므로, 이를 용도 변경하여 도서관 건립 부지로 제공하여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청원인들의 요구와 같이 임대주택이 밀집한 수서동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이 이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 도서관 정책의 기본적인 의무임.
-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 도서관 정책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20년간 나대지 상태로 묶어둔 토지를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은 타당하며, 청소년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도서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서울시는 본 청원을 제출한 수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67	접수년월일	2009. 05. 29.
청원인	김연정 외 3,984명		
소개의원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 제4선거구)		
건명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 〈요 지〉

- 수서택지개발지구는 90년대 초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지만 공공 도서관이 없는 곳이다. 이 지구내에는 개발 당시 수서동 737번지의 약 3,000여 평을 학교부지로 확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로 존치되어 있다. 수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대부분 초소형 임대 아파트 거주민으로 구성되는 등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약 20년 동안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는 위 용지를 학교 신축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대체 방안으로 공공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임.
- 수서택지개발지구는 90년대 초 약 14,000 가구가 건립되어 현재 약 6만여 명의 주민과 10여개의 초중고교가 소재하고 있다. 수서동의 경우 임대주택 밀집지역이고, 대부분 초소형 임대 아파트여서 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는 현실이다.
- 동 지구 내에는 개발 당시 수서동 737번지의 약 3,000여 평을 학교부지로 확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로 존치되어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열악한 지역주민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20여년 동안 활용되지 않는 위 용지를 , 학교 신축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대체 방안으로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임.